

학문의 최종목적은 영생 쟁취에 두어야

학문이라는 말에는 여러가지 뜻이 있다. 흔히 학문이라고 하면 배울 학(學)에 물을 문(問)을 써서 어떤 것을 묻고 배워 익히는 것이라고 쓴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하는 학문은 그와 다른 것으로 배울 학(學)에 글월 문(文)을 써서 고전(시경, 서경, 주역, 춘추 등)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이 세상에 진정한 학문은 없다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이라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모나지 않고 지혜와 덕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지만 사망 권세 아래에서의 학문이란 엄밀히 말하자면 사망의 학문은 필자연장 참 학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긴자께서는 "이 세상에 학문이 없었다"는 핵폭탄적인 외침과 함께 참학문을 선포하셨다. 참 학문이란 죽음의 권세를 타파하여 완벽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학문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관련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면장을 할 수 있지 몰라서야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잘못된 해석이다. 우리나라에 면장제도가 들어온 것은 일제시대인데 이 말은 그 훨씬 이전부터 사용해 왔다. 원말의 면장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즉 면면장(免面牆)이 줄어든 말이다. 이 표현은 공자가 자기 아들에게 "(시경)의 '수신과 제가'에 대해 공부하고 익혀야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친 데서 유래했다. (경향신문 2022.1.10. 우리말 산책 참조)

따라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은 영생의 참 학문을 알면 죽음의 장벽에 갇혀 있는 답답함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영생의 학문을 알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뜻으로 고쳐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생의 길은 마려토과 같다. 끝까지 참고 달려야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다.

'나'를 이긴 이긴자의 학설

이 세상은 태어나는 순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 생존의 전쟁터이다. 이렇다 보니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약육강식의 처절한 싸움이 계속된다. 누구는 승자가 되고 누구는 패자가 되는 이 세상은 승자만이 기억되는 불합리한 사회이므로 이러한 싸움은 진실된 의미에서 이 세상을 누구나 바라는 이상향인 낙원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잘못된 싸움이다. 진정한 싸움은 자기자신과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극기승자천하승(虎己勝者天下勝), 나를 이기면 천하를 이긴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 첫째는 싸움의 대상은 외부에 있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인 '나'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천하가 곧 '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기면 천하를 이긴다고 한 것이다. 이긴자께서는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죄악제국이요 죽음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나'를 이기면 죄악을 이긴 것이요 마귀를 이긴 것이며 죽음을 이긴 것이 된다. 이렇게 '나'를 이길 때에 이 세상은 낙원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학문의 최종목적은 영생쟁취

인과법칙은 진리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인류역사를 통틀어 보면 영웅호걸이든 필부필녀이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였다.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한 것은 죽음의 학문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영생의 학문이 없었다. 영생의 학문이 나오면 죽음의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영생의 세상이 시작되는 것은 정한 이치다.

영생의 학문은 사람이 죽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출발한다. 최근 과학자들은 노화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 일종의 병으로 인식하며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노화와 사망은 인간의 피가 썩음으로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긴자의 영생학을 과학은 아직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서삼경과 성경과 불경 등에 어렵듯이 논해져 있는 노화와 죽음의 원인을 찾아 내지 못하고 있다.

이긴자는 사람이 죽는 원인은 피가 썩어서 죽는다고 쉽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너무 쉽고도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학설이다. 사람의 몸은 기계의 부품과 같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녹이 스는 것처럼 피가 아금아금 썩어서 결국 병들게 되고 죽는 것이다. 피를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영생학인데 성경과 불경에도 영생학을 자세하게 밝히지 못했지만 대강은 말하고 있는바 하나님 또는 부처님이 되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과 불경에 깊이 묻혀 있는 영생의 학설을 찾아서 밝혀낸 것이 바로 영생학이자 새로운 진리 말씀이다. 즉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야고보서 1:15), 찢값은 사망(롬 6:23)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다(요 3:5),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되면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죽음을 벗어나는 존재가 된다고 찾아내었던 것이다.

천국쟁취가 학문의 최종목적이어야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으며, 그러한 본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므로 다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인류 개개인들이 태어난 고향이 다 다르지만 영적 고향은 누구나 똑같은 천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신 14:1)라고 하였듯이 개의 지식은 개요 소의 지식은 소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여야 맞다.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과 낙원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 차등과 기쁨과 행복을 동경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낙원에 살기 위한 조건인 하나님이 되려면 왜 낙원에서 쫓겨났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그 원인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악과이고 나라는 주체의식이다. 성경은 항상 나를 버리라고 하였고, 불경은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고 했고, 유교에서도 나를 이기면 천하를 이긴다고 했다. 즉 나라는 마귀 영을 이기면 천하를 이겨서 천하무적인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다. 나와 싸워서 이겨 영적으로 성공하면 자동으로 영의 나라인 천국을 쟁취하게 된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하였다가 되는 것이다. 이를 성경은 이긴자라고 하였고, 이긴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계 3:12)는 예언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수봉 정로 / 본부제단

무엇을 살았다고 할까

죽은 돼지에게 특수 약물을 넣었더니 심장이 다시 뛰고 간과 신장 세포가 살아났다. 이 돼지는 산 것일까, 죽은 것일까. 3일(현지 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네냐드 세스탄 미국 예일대 의대 교수팀이 죽은 지 한 시간이 지난 돼지 장기를 일부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돼지의 장기 일부가 되살아났지만 뇌 기능이 돌아오지 않아 여전히 죽은 상태"라며 "삶과 죽음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윤리적 의문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2022.08.05 (1시간 전) 죽은 돼지 심장 다시 뛰게 했다) 기사 참조

어떤 것을 과연 살았다고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영생학은 생명은 영이라고 말한다. 또한 육도 영이라고 말한다. 즉 생명=영=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영이 죽은 후 육체가 썩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즉 먼저 영이 죽기 때문에 육이 죽는다는 말이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육도 건강하게 되어 있다. 영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면 영육이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구세주에 배 말씀집



8

신간서적
승리신문 4구분

2001년 5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138쪽 / 큰 본문글씨

- ▶ 구세주에 배 말씀집 8집 펴냄
-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 길ियो 진리요 생명되신 구세주의 말씀
-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어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녹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38>

"아리령은 정도령이 나오시는 고개"

우리 민요에 아리령이라는 노래가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정도령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발병이 나서 죽는다는 뜻이다. 예언서에는 아리령(亞裡嶺)이라고 쓰여 있

는데 아(亞) 자는 백성자의 구세주 정도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도령이 나오시는 고개는 지극히 어렵고 어려운 길이다. 그 어려운 고개를 넘고 넘어서 오늘날 정도령이 나와서 감로 이슬을 내려 주고 있는 것이다.*

CESNUR참관가강하나 이사 발표논문

마음(피)의 원리와 생로병사 해탈의 비결

한류열풍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세계인들은 케이 팝(K-POP), 케이 푸드(K-FOOD), 케이 드라마(K-DRAMA)를 넘어서 케이 릴리전(K-RELIGION)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고 본제단을 방문한 데이비드 김 호주국립대 교수가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강하나 국제신인류문화학회 국제이사장 화사한 한복을 입고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은 의미미한 전략이었다고 생각된다. 구세주 조희성님께서는 여성들에게 한복을 입을 것을 권장하신 것 또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두 번째로, 인간과 신의 실체를 중성자이론과 물질구조의 기본요소이며 본질인 원소를 통해 물질과 신의 실체를 논했다. 다시 말하자면 만물의 최소 단위인 원소 속에 전자와 양성자에게 둘러싸여 있는 중성자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 태초에 영원한 생명의 빛의 존재, 하나님이 인간으로 전락한 과정을 물리학과 과학적인 측면에서 입증하고자 노력했다. 현재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규명하는 논문이었다. 발표 시간 관계상 아쉬운 점은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는 '중성미자', '쿼크' 이론까지 추가하여 언급했다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논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혁신에 찬음성으로 발표해

그는 "마음과 피의 원리를 통하여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비밀(The Secret of Nirvana from Birth Aging Sickness Death by the Principle of Mind and Blood)"이라는 주제를 푼다. 그는 기존 학문과 종교가 말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죽는 원인,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 인간과 신의 실체, 원소 속 중성자의 본질, UFO의 실체 등을 캐나다 퀘벡에서 전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밝혔는데, 이러한 학술적인 활동들은 승리제단의 밝은 미래를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되며, 영생의 신앙과 The Victor Christ(이긴자)가 선포한 '자유율법'이 바로 인류 보편적인 진리임을 학문적으로 전했다는 것은 큰 쾌거였다. 그의 논문 발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셋째로, 52년 만에 미국에서 열린 UFO 청문회(2022년 5월 17일)의 결론 "UFO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는 의문에 대한 답변을 논문을 통해 제시했다. 본인으로 움직이시는 Victor Christ의 생명의 빛이 바로 UFO임을 지명한 신종교학자들의 모임에서 처음으로 밝힌 점 또한 주목 받을 내용이었다.

첫째로, 사람이 죽는 원인과 죽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를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측면에서 영생의 비결을 논했다. 즉, 마음과 피의 원리(사람의 마음에 따라 피가 변하여 몸이 변하고 만물도 변한다는 이론)를 통해 사람이 죽는 근본 원인이 바로 '나'라는 주체 의식에 의해 일어나는 욕심으로 피가 썩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규명하였다. 따라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여 하나님의 몸인 영생의 빛의 존재,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영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발표

첫 국제무대 발표 논문이지만 내용면으로는 그 어떤 발표자보다 참신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은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데이비드 김 교수 또한 강하나 이사의 발표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사실 서양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진리가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과학적 사고로 단련된 그들에게 부활이나 강림이니 하면서 허무맹랑한 논리를 퍼는 기독교가 설 곳은 이미 없다고 누구나 지적하고 있다. 바로 그 빈 자리에 마음과 피의 원리를 전한다면 스피커가 물을 뿜어들이듯 금방 흡수될 것이다. 영생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느냐 빨리 이루어지느냐 여부는 구세주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고 당신은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몸인 영생의 빛의 존재,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영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방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김영숙 승사 / 천안제단

